

‘LNG선 호황’ K-조선, 3Q 영업이익 1.5조

LNG선 매출 비중 60%, ‘고부가가치화’ 4분기 추가 LNG선 대규모 계약 여부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호황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 1조5000억원 돌파가 유력시 된다. 다만, 국제 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 도입 연기와 미중 갈등 등 내년 이후 수주 시장은 안갯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5439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한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조선사별로는 HD한국조선해양 9329억원(134% ↑), 한화오션 3496억원(1265% ↑), 삼성중공업 2175억원(81% ↑)으로 추산됐다.

3분기 호실적의 핵심 동력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씩쓸이’였다. 글로벌 발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국내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보다 2배 이상 비싼 LNG 운반선에 집중하는 선별 수주 전략이 먹히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LNG선 매출 비중은 각각 70%, 60%를 넘

이었고, 삼성중공업도 지난 8월 2조원대 규모의 LNG선 6척을 수주하며 본격적으로 LNG 슈퍼사이클에 합류했다. 이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2분기 영업이익률은 HD한국조선해양 12.9%, 한화오션 13.4%, 삼성중공업 7.6%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관건은 4분기다. 9월까지 조선 3사의 연간 목표 달성률은 HD한국조선해양 68.5%, 한화오션 71.3%, 삼성중공업 51%에 그쳐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시급하다. 삼성중공업은 모잠비크 코랄 북부 가스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 본계약 25억달러와 미국 델핀 FLNG 프로젝트 20억달러 수주를 추진 중이고,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도 LNG선 건조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미중 갈등 등 변수도 남아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해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장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이 반외국독점법을 통해 제재를 확대할 경우 핵심 부품 공급 등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업계는 단



HD현대 울산 조선소 전경.

HD현대 계곡

기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이란 장기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기터빈 방식 LNG선 중 15년 미만 선형이 15%에 불과하고, 전 세계 10만척 선박 중 친환경 선박 비중이 2%에 그쳐 교체 여건이 수요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IMO 규제 연기로 단기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이란 큰 흐름 만큼은 변함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시기가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K-조선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한화에어로, 호주 공장 가동... K9 ‘200문 시대’ 활짝

호주·유럽·미국 잇는 해외생산 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달 호주에서 K9 자주포 생산에 나서면서 ‘K-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며 성능을 인정 받은 K9 자주포가 ‘해의 현자’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적인 물량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설립한 생산 공장(H-ACE)이 최근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H-ACE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로, 호주형 K9 자주포(AS9)를 시작으로 탄약운반장갑차(AS10), 미래형 케드장갑차 레드백 등을 순차적으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은 처음부터 해외 생산 수출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 공장이 가동에 돌입하면서 한

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생산 능력은 2022년 연간 80문 수준에서 올해 200문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거점을 통한 현지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서면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호주·유럽·미국’으로 이어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공급망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서는 WB그룹과 합작투자(JV)를 설립해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에 나선 것은 물론, MRO(유지·보수·운영) 등 유럽 지상무기의 거점으로 루마니아를 낙점했다. 레드백 세일즈를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최종 종착지로 평가되는 미국 방산 시장에서는 현지 개발·생산을 통한 미국

군 탄약 사업 및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법인 겸 지역본부(RHQ)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립하는 등 현지화·공동생산 파이프를 넓히기도 했다. 해외 방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4년간 투입할 자금만 6조2700억원에 달한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연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지상무기 교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롯해 내년 상반기에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루마니아 장갑차 수주 등이 기대된다”면서 “다수의 신규 수주 기회가 포착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실적 전망도 밝다. 올 3분기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은 6조4340억원, 8026억원이 각각 기대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전년보다 144.5%, 영업이익이 68.2% 증가한 수준이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68만달러·GV80’...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KPGA 투어·DP 월드투어 주관



대회장 전경.

제네시스 제공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26일까지 전남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 남자 골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지난해부터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해 출전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라운드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년도 우승자인 안병훈을 비롯해 김시우, 임성재, 마쓰야마 히데키, 아담 스콧, 토마스 디트리 등 KPGA 투어, PGA 투어, DP 월드투어 소속 126명의 글로벌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대회 총 상금은 최대 규모인 400만달러로, 우승자에게는 상금 68만달러 및 GV80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동시에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포인트(KPGA 투어) 1300점과 레이스 투 투라이 랭킹 포인트(DP 월드투어) 835점이 주어지며 향후 2년 간 KPGA 투어 및 DP 월드투어 출전 자격도 부여된다.

대회 기간 13번 홀에서 첫 번째로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와 캐디에게는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60 부분변경 모델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되며, 16번 홀에서

첫 번째로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에게는 G80 블랙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제네시스는 올해도 차별화된 현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가 선수와 캐디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네시스는 대회장에 선수 및 캐디의 전용 휴식 공간인 플레이어스 앤드 캐디스 카페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차량을 지원한다. 골프장 내 랜 빌리지와 제네시스 스위트 등 관람객들이 골프 문화를 즐기며 제네시스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골프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제네시스 컬렉션 상품이 전시되고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충청권 제네시스 전용 거점인 ‘제네시스 청주’ 오픈을 기념해 진행됐던 조성호 작가의 특별전 공예품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대한항공 웨스트젯 지분 인수 마무리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글로벌 항공사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23일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및 ‘케스트렐 홀딩스(Kestrel Holdings)’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억1700만달러, 한화 약 3111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5월9일 웨스트젯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거래는 종결 절차 완료에 따른 계약 지분 인수로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함께 참여했다. 조원태 회장은 웨스트젯 이사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 항공산업을 이끄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위원을 맡으며 글로벌 항공업계의 핵심 리더로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 7위 규모의 항공시장인 캐나다 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지게 됐다. 캐나다 항공시장은 2019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장 규모는 330억달러(약 47조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HMM·한화·KR, ‘무탄소 추진체계’ 개발

암모니아 가스터빈+연료전지 통합

HMM은 화파워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4개사와 한국선급(KR)과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차세대 무탄소 추진체계는 암모니아 가스터빈과 연료전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력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시스템이다.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며,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기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더 나아가 무탄소 추진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선박 개발까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추진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HMM은 선박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을 수행한다. KR은 안전성 검토, 규제 요건 자문 등 국제 인증 취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HMM은 갈수록 강화되는 해운 분야의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목표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을 204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2045 넷제로’를 선언했으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및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 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사·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실선 적용과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겠다”고 전했다.

연구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로,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테니스 전설 나달, 기아와 21년째 우정

‘테니스의 전설’ 라파엘 나달이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엔플릭스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아와 글로벌 파트너십 연감 협약식에 참석했다. 2004년부터 기아 후원을 받아 20년 넘게 동행을 이어온 나달은 “오랜 기간 후원해 준 기아는 가족 같은 존재”라고 추켜세웠다. 사진은 송호성 기아 사장(우)과 라파엘 나달(우). 김상욱 기자

넷플릭스 韓 작품 최초 ‘색상 자막’ 도입

“언어 장벽 넘어 몰입 경험 제공”

넷플릭스는 오는 28일 공개 예정인 ‘피지컬: 아시아’에 넷플릭스 한국 작품 최초로 언어 색상 자막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에게 한층 더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빠른 호흡의 예능 장르 특성에 맞춰 2인 내레이터 화면해설 방식을 도입하거나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개선하는 등 보다 나은 콘텐츠 접근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색상 자막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이용자에게 새로운 몰입형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자 자막에 색상을 적용해 발화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했다. 특히, 명확한 목적 아래 자막에 색상을 적용한 것은 넷플릭스 한국 작품 중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다.

피지컬: 아시아는 한국, 일본, 태국, 몽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 8개국이 국기를 걸고 펼쳐지는 피지컬 전쟁으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출연하는 만큼 여러 언어가 동시에 오간다. 국가 대항전인 만큼 각국의 문화와 색깔이 담긴 다채로운

전략, 팀워크를 보는 재미를 놓칠 수 없다.

이에 작품 내 지정된 팀별 색상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해 시청자가 특정 언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막의 색상만으로 발화자를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대화 흐름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국 참가자의 대사는 빨간색 배경 자막으로, 일본 참가자의 대사는 파란색 자막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국제 웹 표준화 기구 W3C의 접근성 가이드라인 기준도 충족했다.

색상 자막은 한국어·영어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포함해 최대 33개 언어에 적용되며, iOS 기반 디바이스에서는 별도 설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막 설정을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외국어 자막은 색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자막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피지컬: 아시아에 색상 자막을 도입해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몰입감을 선사하고자 했다”며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가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동등하게 누리도록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인도, 러시아산 도입 축소 기대감에 국제유가 강세

유가가 2% 넘게 올랐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 축소 가능성과 미·인도 무역협약의 임박 관측이 겹치며 국제 유종 수요 확대 기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2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1.26달러(2.20%) 급등한 배럴당 58.5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랜드유 12월 물은 전날보다 1.27달러(2.07%) 오른 62.5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인도 경제지 민트는 미·인도 무역 협약이 임박했으며 인도의 대미 수출 관세 인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했다. 시장은 이 합의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축소와 연결될 경우 중동과 미주 등 다른 산지로 조달처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 변수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한 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줄이면 다른 등급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미·인도 무역협정 타결 기대가 유가를 떠받친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